

대구銀 시금고 관리문제 ‘도마위’

市의회 행정자치위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술)에서는 대구은행의 대구시 금고 관리 문제가 4일째 도마 위에 올랐다.

강황 의원(서구)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대구은행의 대구시 세입·세출 일계표에는 대구시금고의 세입과 세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대구은행의 시 금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 강 의원은 지난 3월10일자 대구은행의 세입·세출일계표를 예로 들어, 대구시 예산 중 3천여억원의 향방이 일계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청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대구은행 시청지점을 통해 한장의 전산자료에 나타나지만, 구청이나 시산

하 사업소에 배정된 예산은 대구은행의 여러 지점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 이 때문에 대구은행이 대구시 예산 전체 수치를 나타낼 때는 시청지점 및 각 지점의 내역을 집계해야 한 장의 자료로 나올 수 있는 것.

강 의원은 “구청과 사업소의 예산도 대구시청을 통해 집행되는 것인 만큼 한 장의 전산자료에 모두 나타나야 한다. 3조원대의 시 예산을 취급하는 대구은행의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측은 “세입·세출 일계표에 예산 전체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대구은행에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은행측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